

부활 제2주일

기도서 P. 283 C해

제1독서(사 도 5, 12-16)

제2독서(묵 시 1, 9-11, 12-13, 17-19)

복 음(요 한 20, 19-31)

#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심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강 론

##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김 희 남 신부

모든 인간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는 것이 평화인지 모르겠습니다. 파아란 하늘에 흰구름이 떠가고 푸르른 초원을 한없이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느덧 그윽해지고 아늑한 평화속에 잠겨들어감을 느낍니다. 그럴 때 일 수록 평화를 갈망하는 그 마음은 더욱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강렬한 욕망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이 현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 불복과 투쟁심과 시기가 가득차 있음을 봅니다. 평화를 가장 바라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지만 현실적으로 평화속에서 더욱 헤매이고 있는 우리들인지 모릅니다.

영광스러이 復活하신 예수님은 오늘 복음말씀에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요한 20, 20). 하고 제자들에게 인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격렬한 고통과 투쟁의 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 주님은 아늑한 당신 승리의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이 세상의 뜻뎛하고 현명하다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짓 평화와는 다릅니다. 말로써는 평화를 약속하지만 마음속은 이기심과 불화로 가득차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다릅니다. 그분의 평화는 진실한 평화이며 우리 인류 모두가 계속하여 추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의 평화는 자기 희생과 용서와 사랑으로 인한 괴롭고도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며 당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의해 쟁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속에 머무는 자는 곧 幸福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사안일의 평화가 아닌 희생과 봉사안의 평화입니다. 이러한 평화를 누리는 자는 마음의 고요함을 가지며 그 속에서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고 사람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안에 하나되어 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復活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요한 14, 27)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오직 한 분,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분안에 우리가 기다리고 갈망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날로 더욱 잘 알고, 그분을 날로 더욱 사랑하고, 날로 더욱 그분을 따랐을 때 우리에게 평화는 옵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픔과 희생이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월명동 천주교 보좌신부>



## 새 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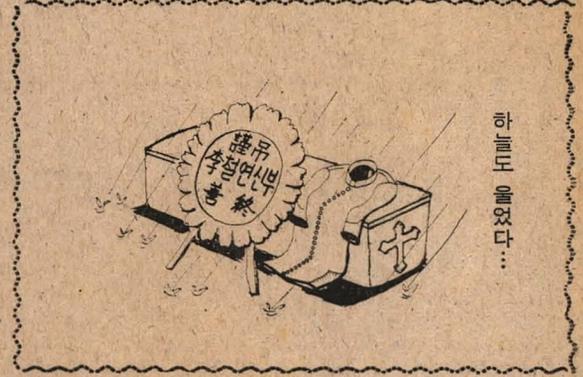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지, 학원가에서는 연일 「어용교수」·「족벌」·「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못해 임시 휴강 상태까지에 이르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대학교수라면 한국 최고의 지성인일텐데, 어쩌다가 학생들의 불신을 받게 되었는가? 대학 운영이 기업경영이 아니라면, 아무리 제 아내나 자녀들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들의 입줄에 오르게 했다던 문제는 분명히 있다 하겠다. 학생들의 자치활동만 하더라도, 그들이 내일에 이 사회를 이끌어 갈 주인공인데도, 민주주의의 체맛을 맛보지 못한 가운데서 오는 문제는 실로 중대한 것이다.

지성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움을 느끼는 교수라면 빨리 물러나라. 이 길만이 학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족벌도 짊어 치우자. 아니, 소위 최고의 교육기관을 돈벌이나 명예욕 충족을 위한 도구로 삼겠다는 썩어빠진 정신을 하루 빨리 씻어 버려라. 차라리 포장마차라도 꾸려서 돈을 벌고, 그 사장이 되어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원의 민주화와 자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민주주의의 참맛을 못느끼며 교육된다면, 그들 역시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민주주의를 뭇켄에 제쳐놓을 것이다. 이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생들도 이제 자신들의 뜻을 외칠만큼 외쳤으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힘을 기르자. 누구의 탓에서 오는 것이든지 혼란이 오면,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힘—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지켜온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새 봄이다. 알차고 진실한 생명의 탄생과 자람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

## 숲 정이 산책



□ 근조, 주여 사제에게... □

□ 속담 모음

### 최고령(最高齡)이시던

### 이철연 신부님 선종(善終)



프란치스코 이철연 신부님  
께서 지난 4월 5일 새벽, 정  
양소에서 89세를 일기로 선  
종하셨다. 사제로 서품되신  
지 60년, 전주교구에 오신지  
36년이 되는 이신부님은 생  
존시에 우리나라 사제들 가  
운데 최고령이셨다.

죽음은 부활의 전주곡이기  
는 하지만 인간의 정리는  
가슴아픈 슬픔이 아닐 수 없다. 한 생을 사제로서 어린  
양들을 위해 봉사하시던 신부님을 보내면서 우리 교우들  
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베레모에 지팡이를 짚고 산  
보하시던 신부님이 병석에 누우셔서 날세만 풀리면 또  
나다니시겠다고 하셨는데... 노령이시지만 본당사목에  
바쁜 사제들을 도와 미사도 봉헌해 주시고, 고백성사도  
주셨는데... 한 때는 돌보아주는 사람이 훌쩍 자리를 비  
워 냉방에서 고생도 하셨는데...

이제, 한 사제를 서운한 심정으로 영결을 하는 마당에  
서,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한다. 가정을 떠나 그리  
스도의 사제로서 생을 바치는 사제들의 노후대책을 신자  
로서는 깊이 생각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간 교구에  
서는 「사제양성 후원사업」을 위해 매 사순절마다 성금을  
등을 벌여왔다. 사제양성과 은퇴하여 정양하시는 사제  
들의 노후대책을 위해서. 그러나 아직은 별무 전진이  
다.

최종한 마음으로 노사제를 보낼 수 밖에 없는 우리의  
불찰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뿐이다. 사제들의 건  
강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갖자. 정양하시는 사제들  
을 자주 찾아 뵙자. 「사제양성 후원사업」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자.

주여, 사제 이프란치스코의 영혼에 길이 평안함을 주  
소서.

□ 故 이철연 신부님의 약력(팔호안은 연도)

- 충북 음성군에서 출생(1892년), 사제서품(1921년)
- 司牧 本堂...강릉(21), 원주 용소막(28), 육천(36),
- 행주(42), 안성(42), 연안(44), 용안(44),
- 장수 수분리(48), 남원(50), 장계(54),
- 전주 교구청에서 정양(1962년~)

### 민중의 소리

—위정자에게 보낸

이 순 성 신부

아아이까나?

미친체 하고 떡묵판에 엮드려지면  
누가 모를줄 알고?  
그것은 소경 제 닭 잡아 먹기여!

그리고도 아동 판최 옥잡외듯,  
고수관의 판전만 부리나  
계수번 출신이여?  
아니면 열사홀 부스럼을 앓았어?

내 콩이 크니, 네 콩이 크니 하지만  
그 개쇠 발팔, 누가 알아줄꼬?  
이젠 우리도 알아어.

잔칫집엔 동행할 수 없음을 말하여... (1980. 3)

〈解説〉 국민들 어느 누구보다 사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를 일삼고도 뉘  
우치기는 고사하고, 말 잘하는 그 입으로 만 수작들만  
부리니. 사리판단 잘못하는 우리는 그들을 미친 사람이  
나 혹은 진정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여길  
수 밖에 없다는 것.

□ 단상 ⑩

### 세가지 증표

최 규 환(알베르도)

학생에게는 중요한 세가지 증표가 있어야겠다.  
명석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과 부지런한 손이다. 이  
세가지는 서로 조화되어야 하고 그 말은바 임무가  
명확하여야 한다.

머리가 명석하지 못하고 가슴이 뜨겁지 않아 정  
열과 희망이 없으며, 그 손이 부지런하지 못하면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명석한 두  
뇌와 뜨거운 가슴이 있어도 그 손이 부지런하지 못  
하면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명석  
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이 있어도 그 손이 부지런하  
지 못하면 행함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와같  
이 그 말은바 임무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양심과  
정의에 귀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덕목이라 하더라도 그 바탕에  
도덕적인 기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  
없다.

###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MCGREGOR Weekend  
맥 그리거 위크엔드

성인·아동용 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④ 4451 유율리안나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제대장식
- 유명장사 직접지도 꽃꽂이 회원모집
-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⑥ 0921

범 락도(덕배)·이 마리아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전례는 교회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신자들로 하여금 빠스카의 신비로 보양되어 사랑안에 한 마음이 되도록 격려하고 신심으로 받은 것을 생활로써 지킴으로 한다.”(전례헌 1장 10)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전례란, 교회 일상생활의 중심을 이룬다. 신자들이 교회내에서 저마다 맡은 직분을 함께 모여서 제대로 수행하는데 전례의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례는 사제만을 위해서이거나 몇몇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전례행위는 성교회의 몸 전체에 관계되고...(전헌 1장, 26) 그러므로 참석한 모든 신자가 다같이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며, 어디까지나 크리스찬 생활 그 자체로 하나의 커다란 신비의 묶인 것이다. 따라서 전례가 거행되는 성당은 교회의 가족이 모인 곳으로 어떤 구경꾼이 모인 장소는 아니다. 그러므로 성스런 분위기가 살아 있어야 한다. 평신도들도 전례적인 자기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몰그림이 구경만 하는 관심거리가 될 수는 없다. 전례를 통하여 평신도들의 크리스찬생활이 새롭게 확신되고 전례를 통한 주님의 은총으로 일상이 생기스러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전례의 분위기를 깨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본다. “기도를 감미롭게 표현하거나 일치를 도우며, 거룩한 의식을 더욱 성대하게 감싸주는...”(전헌 1장 112) 성가대가 오히려 수선스러운 분위기로 분위기를 주게 한다거나, “전례의 길을 깊은 경진심과 올바른 질서로 이끄는...”(전헌 1장 29) 해설자의 복장이 예의를 갖추지 못하여(예비군복 차림, 잠바 차림등) 보는이로 하여금 분심을 가지게 한다.

또 무엇보다도 일주간 동안의 하루, 하느님 앞에서 깊은 경진심으로 단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신자들의 복장과 태도에서 교회의 전례정신에 너무 관심이 없음을 느낀다. 하느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내적(內的)만 아니라, 외적(外的)으로도 좀 더 깊은 경진함과 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신자들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전례에 참여하고 자기 소리에 마음을 합하고 천상의 은총을 헛되지 받지 않도록 은총과 협력해야 한다.”(전헌 1장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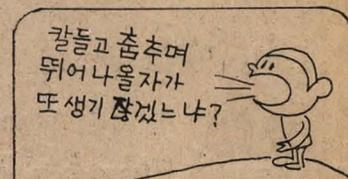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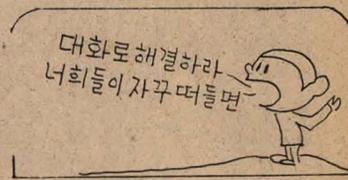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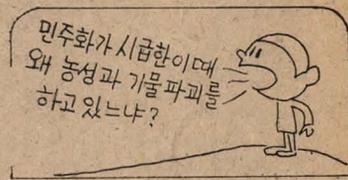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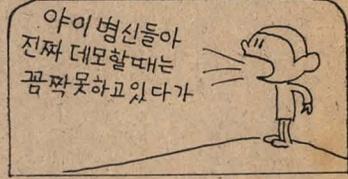
전례는 결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거룩한 행위이며, 일치의 성사인 성교회의 식전(式典)이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전례에 좀더 정성과 경진한 태도와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노 記—

인성회 사순절 모금 현황 (1980년 4월 8일 현재)

부안(64,000),	대야(50,000원),	둔율동(246,510원),	용안(49,135원),
월명동(145,600원),	고산(40,940원),	황동(89,015원),	덕진(74,255원),
호자동(116,515원),	금산(80,685원),	남원(80,500원),	무주(34,730원),
상관(26,430원),	순창(10,530원),	임실(34,200원),	장계(29,325원),
진안(44,625원),	한들(26,500원)		

요심이 (350) 김병오



□ 여성 여러분에게  
 뜻을 선사합니다  
**송옥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이시계점별)  
 전화 ⑥ 6219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로

**문화양행**

오중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칠,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 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로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주 직매점

주오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딩)

전동:2가69(성모병원앞) ③2377번

**방송시간 변경 및 원고모집**

변경: 4월 1일부터

1. 사색의 오솔길

- ① 방송국 및 방송시간: 서해방송 밤11시20분~25분사이
- ② 담당: 나중렬 신부
- ③ 원고내용: 젊은이들의 생활교과와 그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 원고지 5매
- ④ 연락처: 전주 노충동성당

2. 생활종교

- ① 방송국 및 방송시간: 서해방송 주일 아침 7시 40분 매월 1회
- ② 담당: 김환철 부주교
- ③ 원고내용: 생활속에서 신앙체험담, 원고지 12매
- ④ 연락처: 전주교구청

※ 방송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함.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이창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③ 8188 (자 ③0369)

□ 정확 미용학원 학생모집 □

**윤경미장원**

(신부회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 구역전 앞

최윤경 (유리안나)

전화: ③ 8653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제 4 지구 학생회장단 회의...13일 오후 4시, 복자성당에서
  2. 제 4 지구 2/4분기 지구회의...4월 16일 오후 8시, 중앙성당에서  
분당신부·보좌신부·사도회장·재정부장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제 2 지구 2/4분기 지구회의...4월 16일, 월명동 성당에서
  4. 레지오 마리에 단장 피정...1차 4월 22일(화) 오후 2시~23일(수), 가톨릭 센터에서  
2차 4월 28일~29일, ※ 1시30분에 접수~2시 정각에 시작, 참가비는 지난 피정시와 같음  
① 대상-각 브레시디움 단장 및 간부 1명 ② 신설 브레시디움은 2명까지 참석할 수 있음  
③ 준비물-목구, 공동체 생가집, 필기구, 세면도구  
④ 각 분당에서는 1·2차로 나누어 참석시켜 주십시오
- 앨네스티 인권 강연회...4월 19일 오후 8시, 가톨릭 센터에서  
주제-인권과 4·19, 강사-김옥선(전 국회의원)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문 정 현  
③3874 보좌 신부 성 태 수  
보좌 신부 정 태 현  
사도 회장 김 병 구

1. 사도회 월례회: 13일 공식미사 후 (강당) 구문, 감사, 구역장, 반장, 신실단체장 꼭 참석바람
2. 구리아 월례회: 13일 오후 2시 (강당)
3. 가정방문: 15일 오전 10시 저노송동, 중노송동
4. 사제양성 저금통: 아직 반납 못하신 가정은 20일까지 사무실에 가져오세요
5. 성화상영: 13일(일) 오후 8시30분 "마더 테레사"
6. 제대 꽃 봉헌하신 분  
죄인의 의탁 단원 26,500원, 이동열 20,000원, 이마리아 10,000원, 조정례 10,000원, 김테레사 5,000원, 이테레사 10,000원, 이안젤라 5,000원, 익명 10,000원  
계 96,500원

□ 지난주 봉헌금: 577,895원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나 준 근  
사도 회장 박 준 근

1. 미사시간 변경: 새벽미사-매일 새벽 5시.  
저녁미사-오후 7시30분.  
아침, 저녁미사의 모든 미사는 종전과 같습니다
2.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청·장년 재속 형제회: 오늘 오전 11시30분-오후 5시까지. 부활과 더불어 신앙을 새롭게 합시다
4. 제 4 차 성령세미나: 21일(월)-26일(토)까지  
오늘부터 접수 받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 금주의 성경읽기: 사도행전 전체
6. 성서 강의: 매주(월·화)-저녁 8시~9시까지  
(신, 구 약간) 6개월간  
현대가 요구하는 신도는 성서의 생활화에 있다
7. 특별 회사회: 이홍재씨-백미 1가마, 박세욱씨-제대 꽃 2만원, 홍아네스씨-제대 초 10개, 강모니카씨-5천원, 안마리아씨-제대초 4개 감사합니다
8. 신우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402,965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조 정 오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중·고생 및 어린이 미사 시간 변경  
어린이 교리-(토) 오후 3시, 미사-4시,  
특전미사-저녁 8시, 중·고생미사-(일) 오후 3시
2. 미사시간 변경: 주일-오전 6시·10시, 오후 3시,  
저녁 8시, 평일-오전 6시·오후 8시
3. 젊은이 성가연습: 매주(수) 저녁 8시
4. 아직 교적 옮기지 않은 분 빨리 옮겨주시고  
주소가 변경된 교우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세요
5. 성모회: 다음주, 할머니들의 많은 참여 바람  
※덕진분당에서 가져가신 애령포복을 반납 바랍니다

● 부활축일 특별헌금: 384,515원 교무금: 114,000원

(복자)

전화 ⑤238 주임 신부 김 종택  
보좌 신부 박 성필  
사도 회장 조 성로

1.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이충원 형제백)
2. 사제양성 후원 저금통: 오늘까지 내주시기 바람
3. 판공성사 못보신 분들 미사 전후에 꼭 보세요
4. 예비자 교리: 매주일 공식미사 후-히테레사씨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박신부님

5. 약속하신 숭정이성당 신축기금 납부해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6. 셀 지도자 모임: 4월 16일(수요일) 오후 8시
7. 오늘 주일학교: 매일 미사 참례자 시상  
부활행사(그림그리기, 글짓기) 시상식
8. 어린이 생활기록부: 부모님들 협조 바람

□ 지난주 봉헌금: 25,530원 교무금: 476,62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형 수

1. 특별헌금 모금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2. 반장 월례회: 공식미사 후
3. 할머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판공성사 못보신 분은 빠른 시일내에 보십시오
5.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강기호·박병환,  
신자들의 기도-박형직·김배수

□ 지난주 봉헌금: 278,061원 교무금: 86,900원

(숭정이)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요양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남상용 형제백)
2. 신축기금 미납되신 분 빠른 시일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숭정이성당 점포대차 희망자를 선착순 계약중이오니  
속히 수속 바랍니다
4. 신축기금 내주신 분  
이강노(10만원), 이정승(1만원), 김기순(2만원), 조  
순봉(1만원), 김상욱(3만5천원), 오창석(5천원)  
노송분당 신입액중 157,000원, 전동분당 신입액중  
139,500원, 중앙분당 신입액중 11만원,  
문테레사 40만원

□ 지난주 봉헌금: 234,89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업  
보좌 신부 김 기 종  
사도 회장 유 석 중

1. 자모회: 오늘 10시미사 후
2. 장우회: 저녁미사 후
3. 성화회: 공식미사 후 장소-성심여고 교정에서  
체육대회, 점심 준비되어 있습니다
4. 주일학교 자모회 최 막달레나씨 부활절 행사 협조해  
감사합니다
5. 사도회 임원 1 일 피정: 15일(14일까지 사도회 사무  
실에 문의 신청 바람)

□ 지난주 봉헌금: 758,30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회장 채 수 현

1. 레지오 단장님 회합: 오늘 저녁미사 후
2. 사순절 사제양성 저금통 오늘까지 봉헌하세요
3. 숭정이성당 신축 회사금 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  
니다
4. 파티마 모후 브레시디움 회합 변경  
수요일 저녁미사 후
5. 저녁 미사시간 변경: 저녁 8시
6. 부활절에 꽃과 부활초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7. 중학생을 위한 교리: 매주 오후 2시  
(범위-마테오 복음)

□ 부활주일 봉헌금: 187,765원 교무금: 58,000원

## 忠孝禮 노래를 배 놓으면서

옛부터 우리 민족은 예의 바르게 살아왔다.  
오늘날 범국민적으로 정신문화 개발을  
필수하는 이때 국가 성장이 고도로  
발전한 그 이상으로 문제는 인간의 근본이  
되는 충효에 수심 없이는 국가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 부모님께 효도,  
어느 누구 인간의 숭고한 사랑의 윤리만이  
화평 (국제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적 사랑에서 忠孝禮  
노래가 자손 만대에 길이 기려지기를 바라면서

김치복 드림

# 충효예노래 (三綱五倫)

부드럽고 심세하게  
Moderato

김치복 작사  
김치복 작곡

3. 금수강산 - 아름답다 삼강오륜 가람일세  
 배울의 빛 민족의일 충효예로 빛을밝혀  
 은누키 민족사랑 나-라사랑  
 여드나드 밝고고운 길-을위아  
 충효예 길-이 빛-개세

1. 忠孝禮 지켜 福은이 白衣民族 자라왔세  
 三綱은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  
 五倫은 君臣有義 父子有親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차례여 忠孝禮 빛개세